

# ‘류현진 사이영상’ 예측 극과 극

MLB닷컴 사이영상 모의투표서 1위표 ‘0’  
셔저 1위표 23장...디그롬 1위표 19장 추격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MLB닷컴의 사이영상 모의 투표에서 1위 표를 한 장도 받지 못했다.

MLB닷컴이 17일(한국시간) 공개한 투표 결과를 보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후보 중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가 1위표 42장 중 23장을 휩쓸어 165점으로 1위를 달렸다.

제이컵 디그롬(뉴욕 메츠)이 1위 표 19장을 획득해 156점으로 셔저를 맹추격했다.

MLB닷컴의 5차례 모의 투표에서 4번이나 1등을 차지한 류현진은 이번엔 1위 표를 한 장도 못 받고 3위로 처졌다. 류현진의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1위 표를 받지 못해 두 선수보다 크게 뒤진 것으로 보인다.

MLB닷컴 소속 기자 42명은 양대리그 사이영상 후보를 3명씩 추려 투표했다. 1위 표는 5점, 2위 표는 3점, 3위 표는 1점으로 환산해 총점으로 순위를 매겼다.

류현진은 15일 뉴욕 메츠를 상대로 7이닝 동안 무실점의 뛰어난 투구로 이전 4경기에서의 부진을 아쉽게 끝냈다. 류현진은 직전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9.95로 크게 흔들렸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올해 27번의 등판에서 22번이나 2자책점 이하로 던졌고, 단 7경기만 6이닝을 채우지 못하며 시즌 전체적으로 이보다 견고할 수 없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MLB닷컴 기자들의 표심은 셔저와 디그롬 두 선수에게 쏠리는 모양새다.

셔저는 9이닝당 탈삼진(12.51개), 수비무관평균자책점(FIP·2.31), 조정 수비무관평균자책점(xFIP·2.97)에서 모두 리그 1위를 달린다.

야수의 수비 지원을 별개로 투수 혼자 능력으로만 따지면 셔저만한 투수가 없다는 게 기록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사이영상 수상자인 디그롬은 최근 21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09의 뛰어난 투구를 바탕으로 2년 연속 수상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히 디그롬은 190이닝을 던져 부상을 겪은 셔저(159%이닝)와 류현진(168%이닝)을 압도한다. 탈삼진 부문에선 부동의 1위(239개)다.

‘악몽의 8월’ 탓에 류현진이 사이영상에서 멀어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두 차례 등판이 남았기에 희망을 접을 순 없다.

류현진은 ESPN 사이영상 집계에선 스티븐 스트래즈버그(워싱턴·141.2점)에 이어 2위(137점)를 달린다.

/연합뉴스



‘다저스 전설’ 허샤이저 예측 메시지  
“내 마음과 심장은 류현진 이라고 말한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전설적인 투수 옐퍼 허샤이저 스포츠 넷LA 해설자가 류현진(32·다저스)을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NL) 사이영상 수상자로 점쳤다.

허샤이저는 “시즌 전체를 보라. 류현진이 (제이컵 디그롬보다) 더 나은 시즌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미국 TMZ닷컴은 17일(한국시간) 허샤이저와의 기습 인터뷰 영상을 올렸다.

TMZ닷컴은 허샤이저에게 다가가 “누가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받을까”라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허샤이저는 주저하지 않고 “당연히 류현진”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 마음과 심장이 그렇게 말한다. 류현진이 사이영상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류현진은 NL 사이영상 레이스에서 독주하는 듯했지만, 8월 1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부터 9월 5일 콜로라도 로키스전까지 4경기 연속 부진한 투구를 했다.

류현진은 짧은 휴식을 취한 뒤 9월 15일 뉴욕 메츠전에 등판해 7이닝 2피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펼쳐 우려를 씻어냈다.

그러나 NL 사이영상 수상은 확실할 수 없다. 류현진이 주춤한 사이 디그롬(메츠)이 호투를 거듭했다.

류현진은 12승 5패 평균자책점 2.35를 기록 중이다.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고 다저스는 NL 공동 9위다.

디그롬은 9승 8패 평균자책점 2.61을 올렸다. 평균자책점 NL 3위로 류현진에게 밀리지만, 삼진 239개를 잡아 이 부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190이닝(NL 3위)을 던져 168%이닝(NL 16위)을 소화한 류현진을 앞서고 있기도 하다.

류현진의 짧은 부진이 경쟁자들에게 추격의 기회를 줬다. 그러나 허샤이저는 “류현진의 짧은 슬럼프 기간만 보지 말고, 전체 시즌을 보라. 그러면 류현진이 더 나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류현진을 두둔했다.

허샤이저는 204승 150패 평균자책점 3.48을 기록한 전설적인 투수다. 전성기를 다저스에서 보냈고, 1988년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NL 사이영상,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월드시리즈 MVP를 석권했다.

단일 시즌에 정규시즌·월드시리즈 MVP, 사이영상을 모두 품에 안은 선수는 허샤이저뿐이다.

류현진의 NL 사이영상 수상을 응원한 허샤이저는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은 확실하지 못했다. 그는 “포스트시즌은 실제 경기를 치르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했다.

/연합뉴스

## 젊은 마운드 공 하나에 흐렸다 겠다...내일은 맑음



임기준



하준영

KIA 임기준 변화구 장점에 좌완 필승조 활약...직구 보완 철벽 불펜 도전  
하준영, 시즌초반 연승 ‘에이스 모드’...변화구 다듬어 내년 재도약 다짐



‘직구’에 울고 웃은 두 좌완이 KIA 타이거즈 마운드 미래를 준비한다.

KIA의 고민 많던 2019시즌에도 희망은 있었다. 치열한 내부 경쟁으로 투수진이 성장세를 보이며 ‘젊은 마운드’가 KIA의 새 전력이 됐다.

오랜 시간 계속됐던 좌완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 ‘고졸 루키’ 김기훈이 선발로 착실하게 경력을 쌓았고, 불펜에서는 하준영이라는 셋별이 탄생했다. 부상으로 초반 페이스가 좋지 못했지만 임기준도 자리를 지키며 좌완 불펜진을 구성해줬다.

임기준과 하준영은 내년 시즌에도 KIA 좌완 불펜진을 책임져야 하는 선수들이다. 두 사람은 올 시즌의 아쉬움을 곱씹으면서 내년 시즌 더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임기준에게는 아쉬움이 가득한 2019시즌이다.

지난해 필승조로 맹활약한 임기준은 55경기에 나와 56이닝을 책임지면서 5승 1패 2세이브 8홀드를 기록했다. 올 시즌에도 불펜진의 한 축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어깨 부상으로 스프링캠프 출발이 불발됐다. 이어 부상 여파로 만족스럽지 못한 올 시즌을 보냈다. 긴박했던 상황에 출격하던 지난해보다는 그의 입지도 줄었다.

임기준은 “직구”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임기준은 “올 시즌을 생각하면 아쉬운 것밖에 없는 것 같다. 부상 이후 구속이 떨어졌고 구위도 좋지 못했다. 직구가 좋아져야 한다”고 내년 시즌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언급했다.

직구 아쉬움 속에서도 변화구의 다변화는 임기준이 짚는 성과다. 임기준은 “직구가 좋지 못했는데 변화구를 다양하게 하면서 노력을 했다. 예전에는 직구, 슬라이더 위주였다면 투심, 체인지업을 던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다”며 “올 시즌은 아쉽

지만 야구가 올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다”고 내년 시즌을 기약했다.

올 시즌 KIA 불펜의 새 얼굴로 떠오른 하준영에게도 아쉬움은 남는다.

하준영은 시즌 초반 팀에서 ‘에이스’ 대접을 받았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활약을 펼친 하준영은 연달아 승리투수가 되면서 주목받았다. 6승을 챙긴 하준영은 올 시즌 13개의 홀드도 기록했다.

감독 추천 선수로 올스타전 출전이라는 소원도 이뤄졌지만 초반과 달리 후반 페이스는 좋지 못했다.

하준영은 “점수 차가 많은 상황에서 등판했을 때 집중력이 좋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변화구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정적인 순간 변화구 컨트롤이 흔들리면서 확실하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하준영의 판단이다. 그래도 하준영은 ‘직구’를 통해 입지를 넓히고 미래 가능성을 키웠다.

하준영은 “직구 스피드가 올라오고 좋아졌다는 것은 성과다. 더 힘을 키우고 변화구를 가다듬어서 내년에는 어떤 순간이든 다 막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쫓기는 도루 1위 박찬호 “다시 뛰어야죠”

덕아웃 T 특특

▲빨리 내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 시즌이 끝나가는 게 아쉬운 문경찬이다. 올 시즌 KIA의 깜짝 스타 중 한 명은 문경찬이다. 김윤동의 부상으로 ‘임시 마무리’가 된 문경찬은 공격적 피칭으로 세이브를 쌓아가면서 확실한 마무리로 변신했다. 문경찬은

17일 경기 전까지 1.41의 평균자책점으로 21세이브를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가을 잔치’의 꿈은 이루지 못하면서 ‘빨리 내년이 왔으면 좋겠다’고 올 시즌의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저는 백호처럼 천재가 아니니까요 = 가을부터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포수 한승택. 시즌 초반에는 뜨거운 타격감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승택이지만 체력 저하 이후 감을 잃으면서 아쉬운 가을을 보내고 있

다. 한승택은 “나는 강백호처럼 천재가 아니니까 가을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씩씩하게 웃었다.

▲다시 뛰어야죠 = 박찬호가 다시 스파이크 끈을 조여 줬다. 박찬호는 올 시즌 37차례 베이스를 훔치면서 도루 1위에 올라섰다. 지난 원정 5연전에 앞서 2위와 10개 차로 도루왕에 근접하는 것 같았지만, 원정 5연전에서 한 차례 도루 실패만 기록하면서 페이스가 주춤했다. 그 사이 키움 김하성이 32번째 도루를 기록하면서 5개 차로 박찬호를 압박하고 있다. 박찬호는 “방법이 없다. 무조건 뛰어야 한다”고 막판 스퍼트를 예고했다. /김여울 기자 wool@